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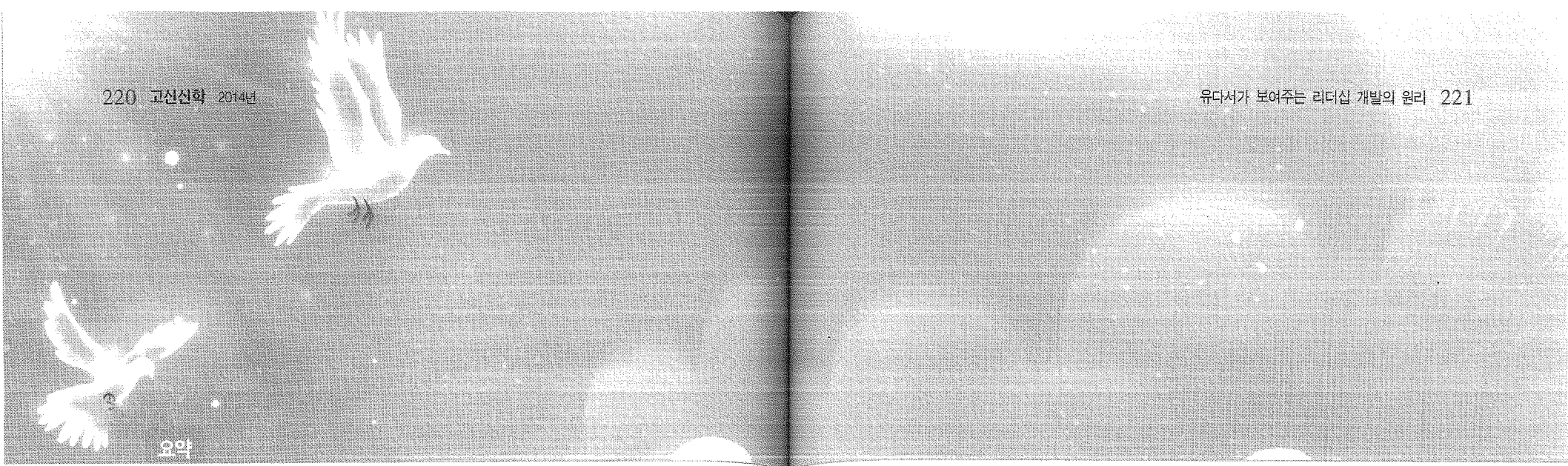
## The Principles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 Epistle of Jude

임영효\*

고신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 교수



1. 서론 | 228
2.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 | 230
3. 영적 지도자의 조건 | 236
4.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내적 자질들 | 241
5. 영적 지도자의 특성 | 254
6.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원동력 | 267
7.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 | 272
8. 결론 | 276



요약

###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 개발의 원리

본고에서는 유다서를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과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과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내적 자질들과 경계해야 할 요소들, 지도자의 특징들, 지도자의 사역의 원동력, 지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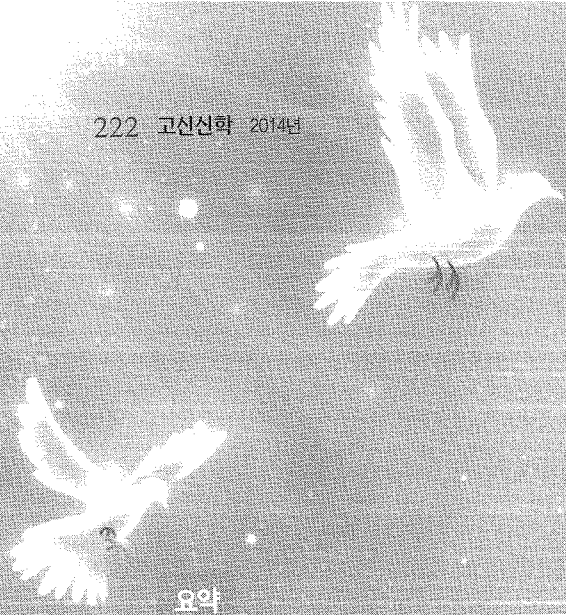
성경은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마 5:13-14),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접촉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들인 영적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유다서는 부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리더로서의 공동체의 진정한 연합과 사명수행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하므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유다는 그가 쓴 서신을 통하여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을 위협하고 유해한 리더십의 모델로서 폭로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참된 영적 리더십의 특징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면서 묘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유다서에 의하면 영적 리더는 단지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본 서신 가운데서 유다는 이러한 영적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거짓된 지도자들과는 달리 믿음과 겸손과 절제와 인내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을 경계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특히 본 서신은 자연으로부터 취한 6가지 은유들을 사용하여 거짓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폭로하므로 참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을 교훈하여 주고



요약

있으며,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들은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 사역의 원동력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서신에서 언급된 영적 리더의 사역의 3가지 원동력은 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내적 자질들과 영적 리더의 6가지 특성들을 배양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서신의 결론부분은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궁극적 승리는 그를 부르신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어진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것을 밝혀주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성경의 리더십 원리로 복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 현대 교회나 선교현장은 물론 기독교 학교와 단체에 이르기까지 참된 지도자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교회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한 믿음, 순전한 인격, 성숙한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해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므로 영적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고신대학교 신학과(Th. B.)를 거쳐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 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 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 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 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The Principles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 Epistle of  
Jude*

주요어

리더십, 영적 지도자, 정체성, 내적 자질, 믿음, 겸손, 절제, 안내, 영적 분별력

Abstract

The Principles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 Epistle of Jude

Prof. Dr. Im Young-hyo

This paper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leadership development in the Epistle of Jude, that is, the identity, the requirements, the inner qualities, the characteristics of a spiritual leader, the prime movers of a spiritual leader's ministry, and the convictions that a spiritual leader should have.

As the Bible states that every Christian is the salt of the earth and the light of the world (Matt. 5:13,14), all of the Christians were called as the spiritual leaders in view of the spiritual influence. Accordingly, Christians should exercise the leadership that influences all the people they may keep contact with. The Epistle of Jude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he extension of the kingdom of God by doing the role for genuine union and task of all the Christians as the spiritual leaders.

Jude disclosed through his Epistle that the false teachers who slipped secretly in the church were the dangerous and harmful model of the leadership. Thus, h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ue spiritual leadership as a servant leadership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Epistle of Jude, a spiritual leader is



not only the person who works effectively but also the person who does his mission rightly in accord with the will of God. Also the Epistle of Jude teaches that a spiritual leader is the person who does his work in the proper methods and means and ministers with the right system of valu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God's Word.

In his Epistle, Jude emphas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leader's ident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accomplish the spiritual leader's task. And he accentuated that mercy, peace, and love should be continuously multiplied in order to achieve a role of the spiritual leader. Also he repeatedly asserted that differently to the false teachers, a spiritual leader should have faith, humility, self-control, perseverance and a spiritual sense of judgement and guard against unbelief, arrogance, and greed.

Especially, this Epistle teaches what should be the appearance of the true leader by exposing the realities of the false leaders. And it requires that a spiritual leader should equip himself with the three kind of prime movers of ministry, that is, the Word of God, prayer in the Holy Spirit, and compensation of Jesus Christ. Accordingly, the three kind of prime movers in the ministry of the spiritual leader which were explained in this Epistle are th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in developing the five inner qualities and six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leader. Finally, the conclusion part of this Epistle made clear that the ultimate victory of the ministry of the spiritual leader is the result of the grace and blessing from the only God who called him and

ended by proclaiming that to the only God should be praise, majesty, and glory.

In conclus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restore to the biblical principle of leadership, for it is so difficult to find the true leaders not only in church and missions' field but also in Christian university and associations. It is true that church cannot surpass the level of the leader. If the church leaders including pastors do not reach to the high level of pious belief, pure character, and mature spirituality, churches also may fail. Thus the contemporary Christians should participate in the everlasting reward and blessing which God promised by accomplishing the mission and the role as the proper spiritual leaders.

Keywords | Leadership, Spiritual Leader, Identity, The Inner Quality, Faith, Humility, Self-control, Perseverance, Spiritual Sense of Judgement

## 1. 서론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게리 유클(Gary Yukl)은 “리더가 따르는 자들에게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sup>1)</sup> 캐나다 리전트 신학교(Regent College)의 학장과 리더십 및 경영학 교수였던 월터 C. 라이트(Walter C. Wright, Jr.)는 “리더십은 지위와 역할에 관계없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리더이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이다”라고 말하면서 “리더십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신념, 또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sup>2)</sup>

성경은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때(마 5:13-14),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접촉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들인 영적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목회자이며 마스터스 신학대학의 학장인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 Jr)는 “리더십은 매혹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귀족들에게 수여되는 명예 휘장이 아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돈으로 사고파는 것도 아니요, 세습되는 것도 아니요, 연배에 따라 정해지지도 않는다. 사업에 성공했거나 재물이 많거나 또는

지성이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흠 없는 인격과 성숙한 영성과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갖춘 사람만이 교회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의 독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3)</sup>

그러면 영적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월터 C.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학장이라는 역할을 맡아 리더십 분야의 여러 주제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삶 전체가 리더십에 얽혀 있는 듯한 나는 유다서가 리더십에 얼마나 큰 관련을 가졌는가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5절에 걸친 내용은 오늘날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향한 설득력있는 서신이다. ... 유다는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리더라고 지칭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며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몇몇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다서를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과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과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내적 자질들과 경계해야 할 요소들, 지도자의 특징들, 지도자의 사역의 원동력, 지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Gary Yukl, *Leadership in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1), 3.

2) Walter C. Wright, Jr., *Relational Leadership*, 양혜정 역, 『관계를 통한 리더십』(서울: 예수전도단, 2002), 17, 21.

3) John F. MacArthur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조계광 역,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7.

4) Ibid. 21-22.

## 2.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1절)

유다는 본 서신의 초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리더십이 형성되어지고 행사되어지기 때문에 리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웨이인 헤이스팅스(Wayne A. Hastings)는 “리더라면 자신에 대한 탐색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증명하기 위한 격렬한 개인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비전을 수립하며 자신을 넘어 대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sup>5)</sup> 월터 C. 라이트는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관건이다. 당신이 무엇을 믿으며,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가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 이 정체성에서 안정감과 의미를 얻음으로 인격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로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즉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영적 지도자의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up>6)</sup>

### (1) 부르심을 받은 자

“나는 왜 존재하는가? 유다의 대답은 간결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섬기는 종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분을 섬기고 그 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사는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이, 영적 리더는 구별된 삶과 사명자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Vocation(직업, 천직)이라는 말은 라틴어 *vocatio*, 즉 ‘소환하다’와 *vocare*, 즉 ‘부르다’에 어원을 두고 있다. 리더가 소환, 즉 부름을 듣는다는 것은 그가 자기를 부르시는 분,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매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과 매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sup>8)</sup>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수립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사역의 기준을 따라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사역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 성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발을 갈다가 부름 받은 엘리사, 양 떼를 돌보던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 세관에서 일하다가 부름 받은 마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배에서 그물 낚다가 부름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브사렐과 오홀리암에게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부르실 때는 구체적인 사역의 장(場)으로 부르시고

5) Wayne A. Hastings, *Trust Me*, 양승일 역,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121.

6) Walter C. Wright, Jr. 12, 27.

7) Walter C. Wright, Jr. 27.

8) Robert Banks and Kimberly Powell, *Faith in Leadership*, 김성웅 역, 『믿음법칙』(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227.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출 31:1-6).

이 사명에의 부르심의 중요성에 관하여 유진 제닝스(Eugene Jennings)는 “조직체와 사회 단체의 역사상 큰 변화는 탁월한 몇몇 개개인의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 그들은 사명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성취하는데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헌신하였다”라고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sup>9)</sup> 제프 캘리귀어(Jeff Caliguire)는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어떤 일을 할 때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에서 가장 활력을 느끼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sup>10)</sup> 그러므로 부름받은 영적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그 밖의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sup>11)</sup>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유익하고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확신하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특권(privilege)이며 도전(challenge)인 동시에 영감(inspiration)이다”라고 말을 한바가 있다.<sup>12)</sup>

9) Eugene Jennings, *An Anatomy of Leadership* (New York: McGraw-Hill, 1972), 1.

10) Jeff Caliguire, *Leadership Secrets of Saint Paul*, 조계광 역, 『사도바울의 리더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31.

11) 19세기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칼빈주의 복음 전도자 D. L. 무디(Moody)는 “많은 일들을 깊이 없이 하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Jeff Caliguire, 56.

## (2) 사랑을 받는 자

유다는 본 서신 1절에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때문인 것으로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 “사랑을 얻고”라는 단어는 “과거에도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영적 리더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확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역사를 위하여 사역하실 때에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일하셨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를 증거해 주고 있다(요 3:35, 5:20, 10:17, 15:9, 17:23, 24, 26). 구약의 영적 지도자 성군 다윗 역시 시편 60편 5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 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오랜 기간동안 리더의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였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다(요 19:26, 20:2, 21:7, 20).

윌터 C. 라이트는 “리더십은 안정된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지식의 안정성 안에서 확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속에서 안정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십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는 일이나 리더십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는 이해에서만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sup>13)</sup>

12) William Barclay, *The Letter of John and Jude*, 박근용 역, 『요한 유다서』(서울: 기독교문사, 1974), 274.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은 리더십에 관한 그의 책 “예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에서 “크리스천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두고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며,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리더십도 영향력이 있으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하고 친밀한 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적절히 언급한바 있다.<sup>14)</sup> 그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와 공유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다. ... 예수님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은 진리다. ... 당신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당신을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5)</sup>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구원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작은 문제들의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것을 확신할 때에 비로소 담대히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sup>16)</sup>

13) Walter C. Wright, Jr., 39, 26.

14) Henri Nouwen, *In the Name of Jesus* (New York: Crossroad, 1989), 28, 31.

15) Henri Nouwen, *Finding My Way Home*, 김명희 역, 『영성예의 길』 (서울: IVP, 2001), 100.

16) D. Martyn Lloyd-Jones, *Life in the Spirit: Classic Studies in John 17*, 제 1권, 차동재 역, 『요한복음 강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284.

### (3) 지키심을 받는 자

유다는 본문 1절 후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어 NIV 판 성경에서는 원문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받은 자들”(kept by Jesus Christ)라고 번역하므로 예수님이 지키심의 주체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지키심이란 과거에도 지키심을 받았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들을 받은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키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는 인식은 리더의 사역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요 6:39, 10:28-29, 17:12, 롬 8:35-39, 딤후 1:12, 요일 5:18).

구약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출 17:4)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공격과 오해와 난관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적 리더의 사역은 때로 억울한 오해와 정당하지 못한 비난과 무고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도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군 다윗은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이 지키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고백하였으며, 시편 16편 5-6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나님의 지키심

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행사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월터 C. 라이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행하고 있다면 리더십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7)</sup>

### 3. 영적 지도자의 조건(2절)

#### (1) 사명에 헌신하는 자(공홀)

본문 2절에서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첫째로 공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지기를 기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공홀(엘레오스)은 어려움과 곤궁에 처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일컫는 단어로써 구약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이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구약의 헤세드(hesed: 자비, 친절, 충성, 끊임없는 사랑)를 헬라이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자비가 아니라 그의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으로 “실제적이든 암시적이든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을 가리킨다.”<sup>18)</sup> 월터 C. 라이트는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할 바를 다하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위탁이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몫까지 친히 감당하신

다. 여기에 바로 ‘공홀’의 개념이 있다. ... 이것이 바로 공홀로 가득 찬 리더들, 위탁한 바를 지키는 섬기는 리더들이 되는데 필요한 모델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미래에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9)</sup>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공홀의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공홀은 언약적 의무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는 구성원들로 인하여 실망과 상처와 거절을 맞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과 끝까지 함께 있어 그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신실하게 충성할 것을 결단하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충성에 대하여,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 Jr.)는 “불충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악에 속한다. ... 충성심은 리더십의 필수 요소다. 현명한 리더는 자신부터 충성심-주님께 대한 충성심, 진리에 대한 충성심,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 리더가 자신의 충성심을 타협하는 것만큼 리더십을 망치는 것이 없다”라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0)</sup>

#### (2) 화평케 하는 자(평강)

유다는 본 서신 2절에서 수신자들에게 공홀에 이어 “평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의 샬롬(shalom)의 헬라이어 번역으로 온전함(wholeness), 부요함(richness), 영적인 행복(spiritual well-being), 영적인 면에서의 번영, 번창(prosperity), 전인의 구원(salvation

19) Walter C. Wright, Jr. 33.

20) John F. MacArthur Jr., *The Book on Leadership*, 윤종석 역,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서울: 디모테, 2005), 99.

17) Walter C. Wright, Jr. 35.

18) 이병철(편), 『구약성서 신학사전 I』(서울: 한국성서연구원, 1986), 554.



of total person), 건강(health) 등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이다.<sup>21)</sup> 또한 이 평강은 “조화(harmony), 신뢰(trust), 안식(rest), 안전(safety), 그리고 자유(freedom)를 나타내며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sup>22)</sup> 따라서 이 평강은 그 공동체의 온전함과 조화의 상태를 강화시켜 주므로 공동체에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 리더는 사역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온전한 조화와 상호신뢰와 자유와 안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월터 C.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리더는 갈등 세계를 잔잔하게 만들고 깨어진 세계를 치유한다. 뿐만 아니라 리더들은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사람들이 주어진 은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 리더십은 평강(shalom)의 관계, 즉 인도받는 자들의 온전한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관계다.”<sup>23)</sup>

미국 덴버 신학대학의 목회학 교수인 제임스 민스(James E. Means)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돌봄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동정심이 부족한 자는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도 애정어린 보살핌의 손을 뻗칠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상처입은 자들에게 진정한 동정의 마음을 표하지 않는 것만큼 위선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 종의 도를 실천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필요, 결핍, 감정, 유혹, 갈등, 그리고 상처에 민감하다. 그들은 남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다.”<sup>24)</sup>

### (3) 사랑하는 자(사랑)

유다는 수신자들에게 세 번째로 “사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유다는 영적 지도자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본 서신 가운데서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3번(3절, 17절, 20절) 언급하므로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25)</sup>

24) James E. Means, *Leadership in Christian Ministr.*, 주상지 역, 『그리스도인 사역의 지도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39.

25)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① 창조적인 사랑(creative love)이다. 이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메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사랑이다.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창조적으로 사랑하여 그 창조적 사랑 가운데서 그 대상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사랑이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말씀하고 있다. ② 희생적인 사랑(sacrificial love)이다. 이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인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어주는 사랑이다. 엡 5:2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엡 5:25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갈 2:20에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을 찾아 제공하는 사랑이다. 참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돌보아 주는 사랑이다(엡 5:29).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이기적인 경향을 가진다. 신체적 매력, 가진 재산, 학벌, 명성, 개성들 때문에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그 사랑의 근거가 가변적이고 유한한 것처럼 지속

21) Leon Morri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59), 49. Gerald F. Hawthorne, *Philipp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3,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3), 11.

22) Simon J. Kistemaker, *New Testament Commentary: James and 1-3 Joh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375.

23) Walter C. Wright, Jr. 32.

월터 C. 라이트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의 일관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리더십은 사랑의 관계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들의 삶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자들만이 효과적인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적절히 말하고 있다.<sup>26)</sup> 이처럼, 영적 리더는 어떤 지위나 힘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히 섬기는 자이다.

제임스 민스(James E. Means)는 영적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사랑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계속적인 사역에 있어 중요한 것에서 실패하는 것임을 영적 지도자는 끊임없이 상기하여야 한다.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은사와 능력의 가장 놀라운 것까지 부인하는 것이다. 관계가 사역에 선행하고, 사역은 관계를 꼭 필요로 한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은 효과적인 사역을 방해한다. 영적 지도자와 추종자들 사이에 온화하고 사랑이 오가는 관계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 영적 지도자는

적인 사랑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나고, 심지어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허무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 ③ 변치 않는 사랑(unchangeable love)이다. 인간의 사랑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자신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근거하는 영원한 사랑이기에 변치 않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④ 늘 새로운 사랑(everfresh love)이다.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권태를 알지 못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여호와와 그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 3:22-23)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엡 3:18-19)

26) Walter C. Wright, Jr. 32.

사랑이 많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심 많은 지도자의 조종적이며 기민한 공작으로 인식되기가 쉽다.”<sup>27)</sup>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체에 봉사할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사랑과 인정을 받고, 그 공동체에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신명나게 일하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해주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에게 이 사랑은 사역에 없어서는 안될 절대 필요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내적 자질들 (5절-7절, 22절-23절)

##### (1) 믿음(4절-5절)

유다는 본문 4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그 시대의 거짓된 지도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불신앙 때문인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존 비버어(John Bevere)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든든한 기초인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기 전에는 올바르게 하나님

27) James E. Means, 203.

을 경외할 수 없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경외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sup>28)</sup>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형성되어지며, 이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유다는 본문 5절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1,207,1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근본원인이 불신앙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sup>29)</sup> 이 사건은 영적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믿음의 근거인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confidence)이며 신뢰(trust)를 의미한다. 확신은 내적 결단이며 신뢰는 이 결단의 외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믿음의 근본 특징은 겸손, 즉 심령의 가난함, 영적 과탄을 깨달은 상한 마음이다.”<sup>30)</sup>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 리더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는 주님의 말씀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문제의 극복과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영성깊은 목회자였던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믿음이란 내가 무력하고 무능하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엎드리는 행동”

28) John Bevere, *The Fear of the Lord*, 유정희, 우수명 역, 『존 비비어의 경외』(서울: 터치북스, 2011), 15.

29) 민수기 1장 45-46절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모두 603,550명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동일한 수의 여성들로 계산한다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207,100명이 된다.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형벌을 명한 이후로 38년 동안의 여행의 날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90명의 인원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30) John F. MacArthur Jr.,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한동수 역, 『참된 무릎꿇음』(서울: 살림, 2008), 312.

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로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 것을 요구할 수도 얻을 수도 이를 수도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sup>31)</sup>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서 충성과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다.<sup>32)</sup> 따라서 믿음은 영적 리더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영적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리더십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존 비비어(John Bever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믿음은 통해서만 그 은혜에 다가갈 수 있다(롬 5:2). 문제는 은혜가 모자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만 한다. 당신의 집으로 물을 보내주는 수로관을 생각해 보라. 만일 그 관이 파열되면 물의 흐름이 끊길 것이다. 수원에서 물이 무한정 공급되더라도 관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당신의 집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은 관이며, 물은 은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한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대로

31) Andrew Murray, *Humility*, 채대광 역, 『겸손』(서울: 좋은씨앗, 2007), 136.

32) 원문상으로 믿음(피스티스)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피스티스)은 같은 단어로서 믿음이 있는 영적 리더가 충성과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세상이 우리를 다르시기 시작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당신의 믿음이 자랄수록 ‘관’이 더 커진다. 그 결과 더 많은 ‘물’(은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셔서, 궁핍한 지역에서 생명을 전하게 하신다.”<sup>33)</sup>

리더십의 전문가인 맥스 드 프리(Max De Pree) 역시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있다.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인 인물 혹은 특별한 기술이상이요, 성품에 관한 것임을 말이다.<sup>34)</sup> 그렇다면 성품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가슴 깊이 자리잡은 확신에서 솟아나온다. 다르게 말하면, 이끌어가는 자들이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깨끗하게 견딜 수 있다면, 그의 성품은 그의 믿음에 닿을 내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아주 깊은 의미에서 볼 때, 리더십은 믿음과 함께 간다”고 역설하고 있다.<sup>35)</sup>

## (2) 겸손(1절, 6절, 9절)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주님의 형제로서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의미로 이제는 삶과 사역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으로 참된 영적 지도자의 겸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적 지도자가 따라야 할 모델로서 천사장 미가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겸손의 내적 자질을 구비해야 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겸손의 자질은 자신의 사역의 성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33) John Bevere, *Relentless*, 유정희 역, 『존비버의 끈질김』(서울: 두란노, 2012), 168, 169.

34) 교회의 영적 지도자(장로)의 자격기준을 기록해 놓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절-7절은 장로의 기능보다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주목하라.

35) Robert Banks and Kimberly Powell, 5.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유다서가 보여주고 있다.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사명을 가장 고귀하게 성취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피조물인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와 최고의 미덕 그리고 유일한 행복은 자신을 겸손으로 내려놓아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데 있다. ... 교만함, 곧 이 겸손의 상실은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면서 “겸손은 우리의 전적 무익함을 인정하는 낮아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6)</sup> 주님께서도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친히 말씀해 주셨다(요 15:5).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교만을 경계해야만 한다.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나 권위로 구성원들을 지배하거나 명령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므로 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구성원들은 쉽게 알아보게 되고, 존경과 신뢰를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자를 따르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가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따르게 되므로 협력과 연합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이 교만에 대하여 영성 신학자 크리스 웹(Cris Webb)은 “교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영혼의 블랙홀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똑같이 교만한 사람에게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 시기와 분노라는 한도를 넘어서기까지도 한다. 그들은 이미 마련해 놓은 기반 위에 두 발로 당당히 딛고 선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인정할 때는 걸로 친절하고 사려 깊게 보인다. 예의 바른 말 몇 마디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7)</sup> 밥 안디안(Bob Yandian)

36) Andrew Murray, 21, 26, 31.

37) Chris Webb, *The Fire of the Word*, 장택수 역,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서울: 예수전도단,

은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모든 상황을 제멋대로 조절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지나치게 자만심이 강해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8)</sup>

본 서신 6절에서,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만족에 빠져 불순종하고 천국에서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 바로 겸손을 상실하였기 때문인 것을 지적하면서 영적 지도자에게 이 겸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고 하나님은 겸손을 높이 평가하시고 이 겸손이야말로 위대한 삶과 영적 리더십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sup>39)</sup> “하나님은

2013). 226.

38) Bob Yandian, *Leadership Secrets of David The King*, 강주현 역, 『다윗 섬김의 리더십』(서울: 경영정신, 2001), 66.

39) 데일버크 리더십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H. 데일버크(H. Dale Burke)는 그의 저서 *How to Lead and Still have a Life* 『삶을 즐기는 리더십』에서 다음과 같이 리더십에서 겸손과 교만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1) 겸손은 책임을 떠안는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본다. (2) 겸손은 객관성을 증진시킨다. 겸손한 리더는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는다. 정직한 의견에 항상 열려있고,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3) 겸손은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배우지만, 교만한 리더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4) 겸손은 창조성을 자극한다. 겸손한 리더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사고를 한다. (5) 겸손은 융통성을 키워준다. 겸손한 리더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6) 겸손은 팀의 사기를 복돋워 준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찬사와 감사를 조직이나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재빨리 돌릴 줄 안다. (7) 겸손은 충성심을 불러 일으킨다. 사람들은 겸손한 리더에게 매력 을 느끼며, 마치 풀처럼 달라붙어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8) 겸손은 탁월함을 추구한다. 겸손한 리더는 언제나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빌 3:13-14). (9) 겸손은 균형을 가져온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리더십의 무거운 짐을 팀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사소한 일까지 직접 신경을 써야 하며,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일터를 떠날 수 없다. (10) 겸손은 관계를 증진하고 유지한다. 서번트 리더십을 겸비한 겸손한 리더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태도를

요셉이 교만하지 않도록 13년 동안 준비시키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을 귀하게 여기신다.”<sup>40)</sup>

따라서 참된 겸손에 대하여 존 비버어(John Bevere)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겸손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격의 특성이 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서 첫째가 하나님, 둘째는 다른 사람들, 셋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은 상냥한 말투나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산물인 능력 안에서 담대하고 끈질기게 사는 것과 관련 있다. ... 우리는 모두 지도자요 선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가? 겸손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겸손하나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행하고 있는가? ... 참된 겸손은 삶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sup>41)</sup> 그래서 벤자민 윌리엄스(Benjamin D. Williams)는 “겸손한 사람은 중심이 잡혔고 균형이 있으며,

유지하므로 언제나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교만의 역할은 (1) 책임을 꺼안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 (2) 객관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산다. 교회나 기업의 교만한 리더는 모든 사람이 확신하는 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한다. 무엇인가 잘못되면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할 뿐이다. (3)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대신 편견을 갖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4) 융통성을 갖기 보다는 엄격하다. “우리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주장한다. (5) 팀의 사기를 높여주기 보다는 거꾸로 사기를 떨어뜨린다. 교만한 리더는 자신의 성과는 부풀리면서 타인들의 것은 깎아 내린다. (6) 교만한 리더의 직원들은 현재의 직장에 충성하지 못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 (7) 교만은 탁월함을 지향하는 대신 자신이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8)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신 결국 일중독이 되고 만다. 교만하여 항상 관리권을 쥐고 있으려 한다. (9)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대신 자신이 다가서려는 고객이나 성도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교만은 타인들에 관한 일을 할 때마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도록 만든다(강주현, 황진아 역, 가이드포스트, 2006, 99-106).

40) Os Hillman, *Change Agent*, 서경의 역, 『하나님의 통로』(서울: 터치북스, 2013), 120.

41) John Bevere, *Relentless*, 유정희 역, 『존비버어의 끈질기다』(서울: 두란노, 2012), 178, 179, 209.

통합되어 있고, 전체적이면서 건강하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다. 겸손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다른 모든 영적 덕성을 배양하는 토양이다. 이런 덕성은 높은 수준의 리더십에 합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sup>42)</sup>

### (3) 절제(4절, 8절, 11절)

유다는 본 서신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라고 거짓된 지도자들의 특징이 모든 윤리적인 무절제한 삶이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즉 거짓된 지도자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율법의 요구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즐기는 방종한 생활에 빠졌다는 것이다. 본문 8절에서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라고 성적인 무절제에 빠져 음행하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16절에서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다는 11절에서 발람 선지자를 이런 무절제 즉,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혔던 거짓된 지도자의 모형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물질적인 이득과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탐욕에서 예언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던 사람으로 마침내 칼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42) Robert Banks and Kimberly Powell, 128. 영적 리더의 겸손에 대하여 토저(A. W. Tozer)는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리더는 이끌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참을 수 없는 내적인 열망과 외적인 상황의 이끌림 때문에 리더의 자리를 맡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 저는 리더가 되려는 야망을 품은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정당하며 확실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진실한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며 온유하며 자기 희생적이고 전적으로 이끄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Hans Finzel, *The Top Ten Mistakes Leaders Make*, 조기현 역,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서울: 프리셋트, 2001), 33.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민 31:8). 따라서 유다서는 참된 영적 지도자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sup>43)</sup> 절제 혹은 자제력이 없는 리더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운전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절제에는 분노, 시기, 비난, 탐욕, 언어의 요용 등에 대한 정신적 절제와 먹는 것과 관계있는 음식과 기호식품, 금전낭비, 성, 오락 등에 대한 육체적 절제가 있다. 그러나 절제하는 리더는 그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참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더욱 힘쓰고 집중하게 하므로 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므로 사역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경건한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두 번이나 체험했던 솔로몬은 경영능력이 뛰어난 리더로서 큰 성공과 부를 이룰 수가 있었지만 이 세상이 쾌락과 정욕과 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절제한 삶에 빠지므로 결국 그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만 것을 볼 수 있다(왕상 3:5-15, 6:11-13, 9:1-9, 10:26-11:13).

따라서 존 맥아더는 절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제력있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늘 가장 어려운 일부터 처리합니다. 이런 일처리 방식은 자기 훈련을 터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시간을 지키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요소들을 잘 정돈해야만 제 시각에 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43) 미국의 제 16대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분을 발하는 성격이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화내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는 분을 발하는 것을 절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화나게 한 당사자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서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고 한다. 이것은 분노를 절제하기 어려웠던 링컨 자신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Gary McIntosh and Samuel D. Rima, Sr., *Overcoming the Dark Side of Leadership*, 김기호 역, 『리더십의 그림자』(서울: 두란노, 2002), 140.



절제는 다양한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sup>44)</sup>

성경은 “마땅히 주의 종은 ...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딤후 2:24)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유는 “좋은 것은 기억하고 악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sup>45)</sup> 존 맥아더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를 입에 올리거나 기억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감정을 잘 통제해야 한다. 그런 말이나 생각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 상처가 되살아날 뿐 아니라 분노가 솟구쳐 생각이 어두워질 뿐이다”라고 생각의 절제가 영적 리더의 중요한 자질임을 밝혀주고 있다.<sup>46)</sup> 성경은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엡 5:18, 골 3:16).

#### (4) 인내(22-23절)

유다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인생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거나, 거짓된 지도자를 따르기로 선택하거나, 심지어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훈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22-23절).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오래 참음으로 사역하였음을 밝히면서(고후 6:6),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엡 4:2)라고 권면하였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살전 5:14)고 명령하고 있다.

진정한 인내는 잘못하고, 할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정당당하여

44) John F. MacArthur Jr., *Truth Endures*, 이지혜 역, 『최고의 설교』(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190.

45) John F. MacArthur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조계광 역,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408.

46) Ibid.

잘못한 것이 없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참는 행동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약속하고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Calvin)은 “만일 우리가 훌륭한 인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달릴 노정의 반도 못가서 몇 천번이고 좌절되고 말 것이다. ... 사단은 교묘하게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시험에 부딪치게 하여 용기를 잃게 하므로 실로 그리스도인은 굳건한 인내심에 의하여 지탱을 받지 않는다면 단 두 발도 떼어놓기 전에 반드시 피곤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sup>47)</sup> 조직 신학자 존 머레이(John Murray) 역시 “인내란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하신 방법에 우리가 자신을 바치는 가장 강하고 집중적인 헌신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린바 있다.<sup>48)</sup>

그래서 월터 C. 라이트는 “성경적인 리더십은 관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본으로 삼는, 장기간에 걸친 관계다. 리더십은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는 목적을 향해 사람들과 인내심을 갖고 동행하는 관계다”라고 말하므로 영적 리더의 결실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약점과 결점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sup>49)</sup>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영적 리더는 인내의

47) John Calvin, 『신구약 칼빈성경주석: 히브리서』 10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239.

48) John Murray, *Redemption-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55), 192-193.

49) Walter C. Wright, Jr., 240. 일반적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즉, 성도들이 목회자를 알기 위해서 3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2년이 필요하며,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2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에 충성하는 리더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약 5:11, 계 2:26).

### (5) 분별력(3-4절)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사역했던 유다는 그 시대에 이미 거짓된 지도자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은밀히 침투해 들어와 있었음을 분별하여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므로 그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음을 3절과 4절이 이를 밝혀주고 있다. 이처럼, 유다는 원래 다른 기록목적 가지고 있었으나 공동체가 직면한 더 큰 문제를 인식하고 급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은 유다에게 놀라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별력이란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주어진 문제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분별력은 주어진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수단,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하며, 공동체에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제임스 민스(James E. Means)는 “영적 지도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50)</sup>

성경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은 단순히 진리를 위한 싸움에 있어서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능동적이고 공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엡 6:10-17)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살전 5:20-22, 요한 1서 4:1-3). 따라서 분별력의 중요성은 성경전체를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다(잠 2:3, 23:23, 고전 16:13, 빌 1:9, 히 5:14, 계 2:2).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까 염려하여 고후 11장 1-4절에서 두려움의 목소리를 발하고 있다. 그들의 분별력의 부족에 관하여 염려하면서, 바울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속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엘리트 학자들조차도 영적 지각이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문제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다(마 16:1-4).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역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이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빌 1:9-11).

비극적인 것은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결핍된 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보다 문화적 추세들과 보조를 맞추는데 더욱 뛰어난 자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요구충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의 언급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sup>51)</sup>

존 맥아더는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오류가 침투해 들어온 이유는 영적 분별력을 잃은 탓이다. 요즘 교회는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배교로 치우치고 있다. 무기력한 신학, 확신없는 설교, 지나친 관용이 강력한 교리, 명확한 성경해설, 확실한 성경원리를 밀어냈다. 그로 인해 빛어진

명성훈, 『리더십 성장 마인드』(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198.

50) James E. Means, 136.

51) Stephen Covey, *First Things First* (New York: Simon & Schuster, 1994), 75.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다. 최근 몇 십년 만에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세속적인 심리학, 신비주의, 성공 철학, 변영 신학, 구도자 중심의 복음 전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생겨난 이머징 교회 속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sup>52)</sup> 따라서, 영적 지도자에게는 사역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유다서는 일깨워주고 있다.

## 5. 영적 지도자의 특성(12-13절)

유다서는 영적 공동체의 연합과 성장을 와해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여 기독 공동체의 리더로 행세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리더십에 반대하여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자 기록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다는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삶의 특성을 6가지 은유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참된 영적 지도자들의 6가지 특성들에 대한 유용한 원리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 (1) 통합성: 애찬의 압초(12절)

#### [거짓지도자: 구성원들의 연합과 협력을 파괴하는 자들]

유다는 본 서신 12절에서 거짓된 지도자들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어 배가 항해할 때 부딪혀 난파할 수밖에 없는 암초와

같은 존재됨을 폭로하고 있다. 유다시대의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영적 공동체 속에 비밀리에 침투하여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식탁교제의 자리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뻘뻘스럽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식욕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묘히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므로 무너뜨릴려고 하는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명수행이나 연합 혹은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므로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구약시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새 왕에게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간청하게 하였으나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성장한 젊은이들의 조언대로 강경책을 선택하므로 열두 지파 중 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르호보암에게는 구성원들의 연합과 화평을 도모하는 통합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의 결여로 자신의 영도와 권위를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했던 것을 볼 수 있다(왕상 11-12장). 이처럼 영적 리더는 언제나 따르는 구성원들의 형편과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소통과 연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만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웨이인 헤이스팅스는 “분열을 일으키는 리더처럼 팀과 조직에 해가 되는 사람은 없다. 공포, 불안, 혼동은 인간관계와 팀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던 비전과 가치를 쓰레기로 전락시킨다. 분열은 우리편과 상대방으로 가르는 분위기를 조성해 직원들과 경영진을, 경영진과 간부들을, 간부들과 이사회를 분리시킨다. 분열은 말 그대로 전쟁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sup>53)</sup>

52) John F. MacArthur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257-258.

53) Wayne A. Hastings, 76.

성경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엡 4:3-4)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영적 리더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빌 2:4) 구성원들의 연합을 도모하여야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리더는 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좌절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이런 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 하므로 가장 효과적인 결정과 온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제임스 민스(James E. Means)는 “형편없는 지도자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자를 속이며, 또한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쓴다. ... 무능한 지도자는 인내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의견의 일치를 위해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견의 일치란 성경이 의미하는 바의 연합을 의미한다. ... 그러므로 훌륭한 지도자들은 결정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언제나 결정 과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믿고, 책임을 맡기고, 미래를 구축하는데 참여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동기 부여의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제외되었을 때, 거의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sup>54)</sup>

54) James E. Means, 183, 185. 232.

(2) 이타성: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12절)

**[거짓 지도자: 타인에 대한 무책임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착취하는 이기주의자]**

유다는 본 서신에서 거짓된 지도자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함으로 그들은 자신들만 돌보는 거짓된 목자, 샅군 목자들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착취하고 이용만 하는 자들이었다(요 10:10, 12, 13). 에스겔 34장 8절에 “샅꾼 목자는 양을 돌보지도 먹이지도 않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본문 16절에서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이들의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다.

성정적 리더십의 모델로서 소개되고 있는 목자는 주어진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삼가는 자이며(행 20:28),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않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자이며(벧전 5:2),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요 10:11). 그러나 제임스 민스(James E. Means)는 “오늘날 다수의 교인들은 지도자들의 보살핌을 받기보다 이용당하고 있음을 느낀다. 사람들은 지도자의 장기판에서 이용물이 되거나, 또는 지도자의 왕국 건설에 필요한 벽돌을 쌓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분개하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교인 개개인뿐 아니라, 전체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복지에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sup>55)</sup> 그러므로 영적 리더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자신이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통한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리더 자신의 동기를 면밀히 살피고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에 리더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55) Ibid. 61.



구성원들에게 리더 자신의 정직성과 존경심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구성원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따르는 자들이 갈수록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아 중심적인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치명적인 파괴력을 발휘하므로 리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단합된 정신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구성원 개개인을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섬김과 동역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힘쓰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잠재력을 개발하게 하므로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구성원들이 더 나은 역할과 확장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성공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래서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지도자는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자신의 자원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sup>56)</sup>

윌터 C. 라이트는 “목자란 바로 그 정의 자체가 양떼를 돌볼 임무를 맡은 종인 것이다. 이것은 책임과 섬김의 자리이지, 지위와 권력의 자리가 아니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 때문에 고용된 것이다”라고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sup>57)</sup>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므로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게 됨을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참된 영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성장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공유된 사명 수행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먼저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면밀히 살펴서 자신과 구성원들에게 철저하게 정직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56) John Maxwell,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서울: 두란노, 1995), 267-268.

57) Walter C. Wright, Jr., 54-55.

### (3) 신뢰성: 바람에 불러가는 물없는 구름(12절)

#### 『거짓 지도자: 거짓 약속을 남발하면서 기만하는 자』

유다는 본 서신 12절에서 거짓된 리더들은 비를 줄듯이 잔뜩 기대감만 주면서 실제로는 메마른 땅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려 주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물없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처럼, 거짓된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듯이 약속은 많이 하므로 기대를 갖게 하지만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실망을 주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기만하는 자임을 유다는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약속과 실행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역하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게리 R. 콜린스(Gary R. Collins)는 “신실성은 탁월한 지도력과 효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에 기초가 된다. 신실성이 결여되면 삶과 일, 가족과 회사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교회 등의 모든 곳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58)</sup> 그러므로, 신뢰는 구성원들 간의 연합과 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리더가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리더와 구성원 간에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구성원들은 리더가 자신들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에 협력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윌터 C. 라이트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리더십과 신뢰감 사이에

58) Gary R. Collins, *You Can Make a Difference*, 최예자 역, 『파워리더』(서울: 프리셋트, 2001), 94-95.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리더십은 신뢰의 관계다.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존경하는 인격을 가진 자의 영향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리더에게 신뢰성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sup>59)</sup>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도자가 탁월하게 인격이 고결한 자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의 지도력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직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결국은 그의 참 모습-조종자, 권력 강탈자, 이기적인 착취자를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추종자들은 그런 지도자를 거절한다.”<sup>60)</sup>

드 프리 리더십 센터(De Pree Leadership Center)의 고문이었던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신실한 리더십은 기술, 더 나아가서는 고도의 처세가 아니다. 한 사람의 영적, 도덕적 중심에서 신실한 리더십이 나온다. 신실한 리더십을 이루는 근본적인 구성요소는 청렴결백, 섬기는 자세, 정의와 공평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 서려는 기꺼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61)</sup> 제임스 쿠지스(James M. Kouzes)와 배리 포스너(Barry Z. Posner) 역시 그들의 저서 “신뢰성”(Credibility)에서 “신뢰는 리더십의 기초”라고 역설하면서, 사람들은 리더에게 훌륭한 인격, 즉 믿을 만한 신뢰성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리더들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62)</sup>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는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면 1) 그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2)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창출하게 되며, 3) 신뢰받고 있으면 의사

소통과 상호이해가 증진되며, 4) 구성원들로부터 최고의 능력과 열정을 이끌어내며, 5) 사역진행의 속도는 증가되며 비용은 절감되어지므로 사역의

59) Walter C. Wright, Jr., 38.

60) James E. Means, 34.

61) Robert Banks and Kimberly Powell, 36.

62) James M. Kouzes and Barry Z. Posner, *Credibility*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22.

생산성이 높아진다.<sup>63)</sup>

#### (4) 모범성: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없는 가을나무(12절)

##### [거짓 지도자: 아무런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

유다는 본 서신 12절에서 거짓된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죽었기에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본받을 만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러나 참된 영적 지도자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에 본받을 만한 열매를 맺는 자들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주시하고 그 행동과 삶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행동과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유다는 거짓된 지도자에게는 따르는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바람직한 생산물이나 결실이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참된 영적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나도 저와 같이 되어야지”하는 모델로서 추구되어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윌터 C. 라이트는 “리더는 리더십을 형성하려고 노력할 때 자신이 영향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 그 모든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이는 리더에게 모범성이 있어야 함을 지적해 주고 있다.<sup>64)</sup>

63) 스티븐 코비(Stephen M. R. Covey)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했어도 신속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신뢰성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는다. ... 나중에 사과하는 것은 사과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신뢰를 쌓거나 회복하는 데는 즉시 사과하고 고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The Speed of Trust*, 김경섭, 정병창 역, 『신뢰의 속도』(서울: 김영사, 2009), 49, 273.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인격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리더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리더십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는 훌륭한 리더들은 인격과 정직,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말해 주고 있다.<sup>65)</sup>

존 맥아더는 영적 리더들이 스스로에게 “이 일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활규범이나 식단, 여러분이 따로 정해놓은 공부시간 등은 삶의 모범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나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방식을 따르기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66)</sup>

따라서 존 맥아더는 “교회의 리더십만 온전하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다. ...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지난 35년 동안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룬 비결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그럴 때면 교회의 양적 성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일이고, 또 교인 수를 영적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영적 성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성경의 리더십에 충실한 데 있다고 확신한다”고 고백하면서,<sup>67)</sup> “교회를 다스리는 최선의 길은

64) Walter C. Wright, Jr., 71.

65) Warren Bennis, *On Becoming a Leader*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89), 40, 51.

66) John F. MacArthur Jr., *Truth Endures*, 이지혜 역, 『최고의 설교』(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205.

67) John F. MacArthur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조계광 역,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0. 5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존 맥아더 목사는 29세 때 목회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설교 이외의 모든 교회 업무를 사양한다는 조건으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부임하여 450명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말씀중심의 목회사역으로 1만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는 오로지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자신의 목회사역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다.

독재자가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 기꺼이 따라오게 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는 결국에는 큰 저항에 부딪히고 만다”고 말하고 있다.<sup>68)</sup> 그러므로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리더십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영적 리더의 가장 큰 자산은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솔선수범이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는 감화를 주게 된다.

#### (5) 도덕성: 자기 수치의 거품을 뱉는 바다의 거친 물결(13절)

**[거짓 지도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끼치는 후안무치한 자]**

유다는 본 서신 13절에서 거짓된 지도자들은 거친 물결이 해변에 쏟아내는 더러운 쓰레기와 보기 흉한 잡동사니와 같이 부끄러운 삶의 추한 찌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므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는 부도덕한 사람들인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거친 물결의 물보라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영적 리더는 이런 부도덕성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악한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사야 57장 20절에서도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표현하므로 이런 거짓된 리더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하며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리더에게는 성실과 높은

68) Ibid. 324.

도덕성이 요청되어지는 것이다.

존 맥아더는 리더의 도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리더다운 리더가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늦어도 1960년대 이후로 우리 문화의 기초를 야금야금 잡아먹어온 급격한 도덕 붕괴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서구 사회는 정직, 품위, 명예, 충성심, 진실성, 순결 등의 성품과 같은 덕목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는다. 황금시대에 방송되는 전형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아도 세상이 그런 자질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대번 알 수 있다. ... 안타깝게도 세상의 이런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 세상의 기준이 점점 교회에 스며들고 있다. ... 신약성경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사도 바울이 교회 리더들의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 목록들을 살펴보자. 리더의 필수불가결하며 가장 첫 번째 자격으로 하나같이 꼽고 있는 요건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딤후 3:2,10, 딤후 1:6-7). 바울이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는 ‘나무랄 데 없다’, 즉 흠잡을 데나 더러운 구석이나 트집잡힐 것이 없다는 뜻이다. ...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증거에 오점이 될 만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정직하고 성품이 반듯하며 심각한 도덕적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간단히 말해, 리더란 비난의 여지없이 진실하다는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sup>69)</sup>

#### (6) 방향성: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13절)

**거짓 지도자: 진리에서 이탈하여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목적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자**

유다는 13절에서 거짓된 지도자들은 유리하는 별들처럼 방향성을 상실하고 무목적적인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69) John F. MacArthur Jr., *The Book on Leadership*, 윤종석 역,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서울: 디모데, 2005), 212-214.

이 유리하는 별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방향 감각 없이 이리 저리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별들이다. 이와 같이,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삶도 방향 감각 없이 방황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인생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특징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참된 영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내일에 대한 소망과 공동체의 사명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그 비전이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는 자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그 조직체의 올바른 비전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월터 C. 라이트는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공동체의 공통된 사명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보여 줌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70)</sup>

그는 본문 13절의 언급이 거짓된 리더십에 대한 묘사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인생의 무대를 가로질러 질주하다가 공연도 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순간적인 흥분이다. 헌신도 없고 인내나 참을성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장기간의 투자를 하지도 않는다. 리더십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 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에너지의 폭발로 리더에게 잠시 주의를 끌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sup>71)</sup> 그러나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의 사명으로 향하게 하고,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는 자이다.

존 맥아더는 비전있는 영적 리더의 준비에 대하여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지금부터 계획과 준비를 갖춰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즉시 비전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도 세우지 않고 준비도

70) Walter C. Wright, Jr., 39.

71) Walter C. Wright, Jr., 293-294.



갖추지 못한 탓에 기회가 있어도 사역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기회가 찾아오면 즉시 행동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캐리는 본래 영국에서 신발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했다. 그는 가게에 세계지도를 붙여 놓고 장사하는 동안 틈틈이 지도를 바라보며 울며 기도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수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며 선교전략을 세웠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캐리는 인도선교를 개척했고, 그 덕분에 많은 선교사가 뒤를 이어 인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충실히 미래를 준비했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할 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세월만 보낸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조만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다.”<sup>72)</sup>

이처럼, 비전은 영적 리더에게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게 하므로 효과적인 준비를 가능케 하고, 구성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줌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명확히 하고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이 공유되게 해야 하며 함께 헌신하면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 6.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원동력(20절-21절)

위임받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기고 사역하게 되는 영적 지도자가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역의 3가지 원동력을 유다는 가르쳐 주고 있다.

### (1) 하나님의 말씀(20절)

유다는 섬기는 영적 리더들에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삶과 사역의 원리와 구체적 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도자가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의 원천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적 지도자는 그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께 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자신의 영적 건강과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의 최대의 자산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신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리더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함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요 15:7).

존 맥아더는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로 충만한 순결한 생각을 유지하기를 바라신다. 영적 지도자는 허탄한 신화나 진리와 상반되는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성경의

72) John F. MacArthur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81, 182.

진리보다 헛된 이야기를 좇는 경향이 많다. 일부 신학계에서도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보다 학술적이고 세속적인 이론에 얼마나 능통한가를 학문 능력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 능력있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몰두함으로써 항상 명료한 생각과 진리의 확신을 유지해야 한다. ...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의사전달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역의 성패는 진리의 지식과 경건한 삶에 달려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sup>73)</sup>

윌터 C. 라이트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갖고 있다. 이 지식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할 말이 있는 것이다”라고 영적 리더 자신이 성장하고 사역에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74)</sup>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이론 러쉬(Myron Rush)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조직체들이 세상의 경영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극이다. 그들은 성경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경영철학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sup>75)</sup>

그러므로,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에게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피고 사역의 내용과 방법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영적 리더가 가져야할 내적 자질들과 특성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리더의 사역에 필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설정을 가능하게 하므로 사역의 험통한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수 1:7-8).

73) Ibid. 262-263.

74) Walter C. Wright, Jr., 44.

75) Myron Rush,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Wheaton: Victor, 1983), 11.

## (2) 성령 안에서의 기도(20절)

유다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영적 지도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므로 사역의 방향설정과 사명수행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영적 지도자의 사역에 그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리더로서 사역하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여 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요청되어진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구성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제임스 민스(James E. Means)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대한 제일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신 바는 뚜렷하다. 즉 그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 기도에 응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주시는 내적 확신에 의해 변화를 지향하도록 마음이 움직이고 동기가 유발되게 하는 것이다. ... 만일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조종하는데 소모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하여 행동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두 배의 시간을 들인다면, 영적 지도자는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sup>76)</sup>

윌터 C. 라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중심을 세우며, 하나님의 손에서 발견하는 정체성과

76) James E. Means, 230.

안정성에서 우리는 영향을 주는 관계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능력을 얻는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77)</sup>

존 비비어(John Bevere)는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자연 세계 너머를 볼 수 있게 하며, 어떤 위험이나 공격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 성령님은 우리가 고뇌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으며,<sup>78)</sup> 존 맥아더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일치되어지는 기도를 의미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에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의 뜻을 찾으며, 그의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sup>79)</sup>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므로 사람들을 이끌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이런 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행동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21절)

유다는 세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라”고 권면하므로 영적 지도자의 사역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본문 21절에서 “기다린다”(프로스테코마이)는 단어는 “기다리다, 환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80)</sup>

존 맥아더는 본문의 의미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고전 1:7, 빌 3:20, 살전 1:10, 딤후 4:8, 딤펠 2:12-13, 벧전 4:7, 벧후 3:11-13),<sup>81)</sup> 데이빗 월스(David Walls) 역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리킬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82)</sup>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고 영적 지도자의 사역에 대한 최종 평가와 보상이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 위대한 미래의 날에 우리 몸의 부활과 영화를 경험할 때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역했던 영적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공훈 즉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생의 충만함을 즐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이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롬 2:7, 딤펠 6:12, 요1서 5:13).

존 맥아더는 “마음이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자신의 노력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복음사역이 자신에게는 상급을, 자신의 말을 듣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운명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일꾼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근거이자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83)</sup> 존 비비어(John Bevere)의 언급대로 “하나님의 구속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며 우리의 행함이나 공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80) Ibid.

81) Ibid.

82) David Walls, *Holman New Testament Commentary: I & II Peter, I, II & III John, Jude*, 장미숙 역, 『베드로전후서, 요한일, 이, 삼서, 유다서』(서울: 디모테, 2004), 372.

83) John F. MacArthur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267-268.

77) Walter C. Wright, Jr., 44-45.

78) John Bevere, *Relentless*, 유정희 역, 『존비비어의 끈질김』(서울: 두란노, 2012), 216, 219.

79) John MacArthur J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 Peter & Jude* (Chicago: Moody Publishers, 2005), 201.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sup>84)</sup>

제프 캘리콰이어(Jeff Caliguire)는 “상급, 즉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항상 힘찬 전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sup>85)</sup> 이처럼, 영적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보상인 상급을 바라보며 사역하게 될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세상적인 보상에 매달리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일시적인 오해나 왜곡된 비난에 좌절하지 않게 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역의 과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7.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확신(24절-25절)

### (1) 궁극적 구원의 확신(24절)

유다는 본 서신 24절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고 영적 리더는 리더 자신과 그가 사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가 받은바 사명을 수행함에 궁극적인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그 사역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신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므로 그들의 죄 가운데서 다시 잃어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시 12:7, 잠 3:26, 요 6:37-40, 44, 10:28-29, 17:11-12, 롬 8:28, 38-39, 고전 10:13, 엡 1:9-11, 4:30, 빌 1:6, 벧전 1:3-5).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7-18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자신의 사역의 최종적인 승리와 궁극적 구원을 확신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고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월터 C. 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두려움과 걱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진리 앞에 재조명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지위나 성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리더십은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 그 기분을 두고 있다”라고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sup>86)</sup> 따라서 존 맥아더는 영적 리더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셉(창 39:14)과 모세(히 11:23-29)는 역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며 번영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회,

84) John Bevere, *Relentless*, 유정희 역, 『존비버어의 끈질김』(서울: 두란노, 2012), 301.

85) Jeff Caliguire, 206.

86) Walter C. Wright, Jr., 27.



직장, 교회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sup>87)</sup>

## (2) 궁극적 성화의 확신(24절 하반절)

유다는 본 서신 24절 하반절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이”라고 부르신 영적 리더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궁극적 성화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

“흠이 없이”라는 단어는 “완전무결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자들이 언젠가 누리게 될 죄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 용어는 제물의 순결을 언급할 때 사용되어진 것이다(엡 1:4, 5:27, 빌 2:15, 골 1:22, 히 9:14, 벧전 1:19). 영적 리더가 사역하고 있는 신앙공동체에 부름받은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므로 지금 신분적으로 흠없는 존재가 되었지만(롬 4:6-8, 고전 1:30, 고후 5:21, 딤후 3:7), 여전히 육적이고 죄악된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성숙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엡 4:22-23, 빌 1:10-11, 골 1:28-29, 2:6-7, 3:1-2, 살전 4:1, 9-10, 5:12-22, 살후 3:6, 벧전 2:1-2, 11-12, 벧후 1:4-11, 3:18).

월터 C. 라이트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당신의 리더십 아래 각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에 의해 리더십이 측정된다”라고 이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sup>88)</sup> 또한 제임스 맥그레고 번즈(James

MacGregor Burns)는 “훌륭한 리더십은 변화시키는 리더십, 곧 그 과정 안에서 리더와 따르는 자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주장하는데, 양편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리더와 따르는 자 모두가 더 높은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sup>89)</sup> 따라서 영적 리더는 구성원들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일하므로 또 다른 리더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적 리더의 사역은 그의 부르신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 날에 성도들을 그의 보좌 앞에 험 없이 서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고전 1:8-9).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시고, 그의 영화로운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역하는 영적 리더에게는 끊임없는 기쁨과 결코 다함이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유다는 부름받은 영적 리더와 그의 성도들의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영화를 인하여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찌어다”(유 25)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e)은 그가 쓴 “인간의 의미추구(Man's Search for Meaning)”에서 “희망과 용기의 상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에서 그는 사람이 더 이상 살 이유를 갖지 않을 때, 고대할 미래가 없을 때, 그는 오그라들고 말라버린다고 말해주고 있다. “수용소에서 사람의 내적 힘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에게 미래의 목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라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확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sup>90)</sup>

87) John F. MacArthur Jr., *The Power of Integrity*, 정길호 역, 『존 맥아더의 순전함』(서울: 소망, 2011), 103.

88) Walter C. Wright, Jr., 76.

89) Walter C. Wright, Jr., 79.

90) Michael Green (ed), *Illustrations for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1989),

오늘 우리의 땅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본문의 송영은 부름받은 영적 리더들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소망, 가장 확실한 소망,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가장 복스러운 소망(딤후 2:13)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영적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 나가 영광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처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8. 결론

유다서의 말씀은 25절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한 권의 성경이지만 절대 진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절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세력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적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의 도전과 공격이 극렬해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영적 리더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진리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월터 C. 라이트의 언급대로 리더십이 “지위와 역할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sup>91)</sup> 유다서는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리더로서의 공동체의 진정한 연합과 사명수행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하므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기록되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유다는 그가 쓴 서신을 통하여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을 위협하고

유해한 리더십의 모델로서 폭로하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참된 영적 리더십의 특징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면서 묘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유다서에 의하면 영적 리더는 단지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제임스 민스(James E. Means)가 지적했듯이, “교회성장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지도력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 분모는 유능한 지도력이다.”<sup>92)</sup> 그러므로 본 서신 가운데서 유다는 이러한 영적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거짓된 지도자들과는 달리 믿음과 겸손과 절제와 인내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불신앙과 교만과 탐욕을 경계해야 할 것을 반복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특히 본 서신은 자연으로부터 취한 6가지 은유들을 사용하여 거짓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폭로하므로 참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들은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3가지 사역의 원동력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서신에서 언급된 영적 리더의 사역의 3가지 원동력은 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내적 자질들과 영적 리더의 6가지 특성들을 배양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서신의 결론부분은 영적 지도자의 사역의 궁극적 승리는 그를 부르신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되어진 은혜와 축복의 결과인

194.

91) Walter C. Wright, Jr., 17.

92) James E. Means, 17.

것을 밝혀주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성경의 리더십 원리로 복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 현대 교회나 선교현장은 물론 기독교 학교와 단체에 이르기까지 참된 지도자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 교회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한 믿음, 순전한 인격, 성숙한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존 맥아더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sup>93)</sup> 그리해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므로 영적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3) John F. MacArthur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11.

## 참고문헌

- Banks, Robert and Kimberly Powell. (2008). *Faith in Leadership*. 김성웅 역. 『믿음법칙』 서울: 생명의 말씀사.
- Barclay, William. (1974). *The Letter of John and Jude*. 박근용 역. 『요한 유다서』 서울: 기독교문사.
- Bennis, Warren. (1989). *On Becoming a Leader*. Reading, Mass.: Addison-Wesley.
- Bevere, John. (2011). *The Fear of the Lord*. 유정희, 우수명 역. 『존 비비어의 경외』 서울: 터치북스.
- \_\_\_\_\_. (2012). *Relentless*. 유정희 역. 『존비비어의 끈질김』 서울: 두란노.
- Burke, H. Dale. (2006). *How to Lead and Still have a Life*. 강주현, 황진아 역. 『삶을 즐기는 리더십』 서울: 가이드포스트.
- Caliguire, Jeff. (2006). *Leadership Secrets of Saint Paul*. 조계광 역. 『사도바울의 리더십』 서울: 생명의 말씀사.
- Calvin, John. (1980). 『신구약 칼빈성경주석: 히브리서』 10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 Collins, Gary R. (2001). *You Can Make a Difference*. 최예자 역. 『파워리더』 서울: 프리셋트.
- Covey, Stephen M. R. (1994). *First Things First*. New York: Simon & Schuster.
- \_\_\_\_\_. (2009). *The Speed of Trust*. 김경섭, 정병창 역. 『신뢰의 속도』 서울: 김영사.
- Finzel, Hans. (2001). *The Top Ten Mistakes Leaders Make*. 조기현 역. 『리더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서울: 프리셋트.
- Green, Michael (ed). (1989). *Illustrations for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s.
- Hastings, Wayne A. (2006). *Trust Me*. 양승일 역.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Hawthorne, Gerald F. (1983). *Philipp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3.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 Hillman, Os. (2013). *Change Agent*. 성경의 역. 『하나님의 통로』 서울: 터치북스.
- Jennings, Eugene. (1972). *An Anatomy of Leadership*. New York: McGraw-Hill.
- Kistemaker, Simon J. (1986). *New Testament Commentary: James and 1-3 Joh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Kouzes, James M. and Barry Z. Posner. (1993). *Credibility*. San Francisco: Jossey-Bass.
- Lloyd-Jones, D. Martyn. (2001). *Life in the Spirit: Classic Studies in John 17*. 제 1권. 차동재 역. 『요한복음 강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MacArthur, Jr. John. (2005).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2 Peter & Jude*. Chicago: Moody Publishers.
- \_\_\_\_\_. (2005). *The Book on Leadership*. 윤종석 역. 『사람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 서울: 디모테.
- \_\_\_\_\_. (2008).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한동수 역. 『참된 무릎꿇음』 서울: 살림.
- \_\_\_\_\_. (2009).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조계광 역.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2011). *The Power of Integrity*. 정길호 역. 『존 맥아더의 순전함』 서울: 소망.
- \_\_\_\_\_. (2012). *Truth Endures*. 이지혜 역. 『최고의 설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Maxwell, John. (1995).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서울: 두란노.
- McIntosh, Gary and Samuel D. Rima, Sr. (2002). *Overcoming the Dark Side of Leadership*. 김기호 역. 『리더십의 그림자』 서울: 두란노.
- Means, James E. (1991). *Leadership in Christian Ministry*. 주상지 역. 『그리스도인 사역의 지도력』 서울: 생명의 말씀사.
- Morris, Leon. (1959).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 Murray, Andrew. (2007). *Humility*. 채대광 역. 『겸손』 서울: 좋은씨앗.
- Murray, John. (1955). *Redemption-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 Nouwen, Henri. (1989). *In the Name of Jesus*. New York: Crossroad.
- \_\_\_\_\_. (2001). *Finding My Way Home*(영성예의 길), 김명희 역. 『영성예의 길』 서울: IVP.
- Rush, Myron. (1983). *Management: A Biblical Approach*. Wheaton: Victor.
- Walls, David. (2004). *Holman New Testament Commentary: I & II Peter, I, II & III John, Jude*. 장미숙 역. 『베드로전후서, 요한일, 이, 삼서, 유다서』 서울: 디모테.
- Wright, Jr., Walter C. (2002). *Relational Leadership*. 양혜정 역. 『관계를 통한 리더십』 서울: 예수전도단.
- Webb, Chris. (2013). *The Fire of the Word*. 장택수 역.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 서울: 예수전도단.
- Yandian, Bob. (2001). *Leadership Secrets of David The King*. 강주현 역. 『다윗 섬김의 리더십』 서울: 경영정신.
- Yukl, Gary. (1981). *Leadership in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명성훈. (2002). 『리더십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이병철(편). (1986). 『구약성서 신학사전 I』 서울: 한국성서연구원.